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사의 변화와 세계화는 과학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기반을 위하여 정치 사회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KIST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 KIST하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기관으로 인식됐습니다. 그 때의 기억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연구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고 분야가 넓어지면서 KIST의 여러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나, KIST하면 한국과학기술의 선구적인 기관이고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에 와서 KIST 뭐 하는가 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첨단 선봉에 서서 가고 있구나하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가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면 되지 왜 흥릉까지 오라고 했는지, 누군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여기로 장소를 잡지 않았는가 했습니다. 청와대측에서 했다면 과학기술 현장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주려 했고, KIST에서 했다면 대통령에게 KIST로 한번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서 받은 느낌은 잘 왔습니다. 온 것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KIST 국민 기억에 살아있고 한국 과학기술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4년 된 낡은 건물에 있어 기분이 안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

다. 하여튼 여러 차례 말했듯이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 기여할 만큼 대우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물질적 인력적인 측면 뿐 아니라 보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우하겠다. 여러 측면에서 과학 기술인들이 대우 받도록 모든 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KIST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넓은 건물 안에서 도깨비 같은 신기술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여러 상황 겹치는 데 ‘과학 기술인들이 왜 국가를 현실적으로 이끌어가는 권력기관으로 장악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이공계가 국가를 이끌고 이스라엘도 두 번에 걸쳐 과학 기술인이 수상이 됐으나 우리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조금 지나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한국은 항일 반독재 투쟁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모를 잘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과정에서, 앞장서서 희생한 사람에게 국민들이 몰아줬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독재 항일운동 별로 좋아 안하고 넉넉한 쾌적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 기술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은 현장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인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민주화에서 과학 기술 혁신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제가 지금 한 몫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변화와 세계화는 과학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종이 화학 나침반 인쇄술 등 사회 변화시키는 핵심적이 기술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한국을 건설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

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역대 대통령 중 과학기술인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